키톡(KidTalk) 기획서

1. 사업 개요

1.1. 회사 개요

• **회사명**: 미정

• **대표자**: 신누리

• 서비스명: 키톡(KidTalk)

• 서비스 목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를 지원하는 AI 기반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1.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가 증가하며 심리지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 전문 인력은 부족하며, 기존 서비스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개입, 지속적관리, 조기 발견이 가능한 키톡이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 서비스 개요

2.1. 키톡의 핵심 솔루션

키톡은 아동, 보호자, 전문가 세 그룹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1.1. 아동 인터페이스

- 지속적 관리: 개성 있는 캐릭터와 콘텐츠로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
- 예방적 개입: 검증된 상담 모듈을 활용한 지도 및 심리 상담 제공
- 조기 발견: 정서 이상 감지 모듈을 통해 자동 감지 및 보고 시스템 구축

2.1.2. 보호자 지원 시스템

• 아이의 정서 상태 보고서 및 종합 요약 제공

- 상황별 맞춤형 양육 지침 제안
- 정서 알람 기능을 통해 부모가 꼭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2.1.3. 전문가 연계 시스템

- 자동 심리치료 제안: 아이의 정서 위험 기준 도달 시 전문가 상담 추천
- 상담 사례 보고서 전달: 보호자가 전문가의 상담 제안서를 검토하고 상담 예약 가능

3. 시장 분석 및 차별점

3.1. 시장 기회

-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시장 규모 증가
-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예방적 개입 중요성 강조
- 심리 전문가 부족 및 상담비용 증가로 대체 솔루션 필요성 대두

3.2. 경쟁 서비스 비교

| 항목 | 기존 심리 상담 서비스 | 기존 멘탈헬스 서비스 | 키톡 |
|-----------|-----------------|----------------|--------------------------------|
| 접근성 | 비용과 시간 부담 큼 | 개인화 시 비용 상승 | AI 기반으로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 |
| 개입 방식 | 사후 대응 중심 | 예방 중심이나 한정적 | 지속적 관리, 예방적 개입, 조기 발견 모두 충족 |
| 서비스 구조 | 개별 상담 | 파편화된 서비스 | 종합적 심리 지원 플랫폼 구축 |

4. 비즈니스 모델

4.1. 주요 수익 모델

- B2C 모델: 보호자 대상 구독형 서비스 (월 정액제)
- B2B 모델: 교육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급

• 추가 수익원: 전문가 상담 연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5. 기술 및 운영 계획

5.1. AI 및 LLM 활용

- LLM 기반 대화형 AI: 아동과의 상호작용 최적화
- 정서 감지 알고리즘: AI 분석을 통한 이상 감지 및 보고
- 맞춤형 양육지침 제공 시스템: 보호자 맞춤형 정보 제공

5.2. 운영 계획 및 로드맵

단계 주요 목표

2025 상반기 상담 모델 고도화 및 초기 테스트 2025 하반기 아동 인터페이스 및 감지 시스템 개발 2026 상반기 시범 운영 및 데이터 고도화 2026 하반기 시장 확장 및 B2B 협업 추진

6. 팀 구성

6.1. 핵심 멤버

• -

6.2. 외부 자문단

- 김은준 (프랑스 국가공인 임상심리전문가), 이초연 상담사 심리 자문
- 김주원, 홍종훈 대표 LLM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자문

7. 기대 효과 및 향후 확장성

7.1. 기대 효과

• 심리 지원 접근성 향상 및 조기 개입을 통한 문제 예방

-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효과적인 양육법 지원
- 전문가 연계를 통한 상담 효율성 증대

7.2. 향후 확장 가능성

- 지역 확장: 국내 시장 안정화 후 해외 진출
- 연령 확장: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 추가
- 비즈니스 확장: 기업 및 교육기관과 협업 강화

8. 결론

키톡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 서비스**로서, 예방적 개입과 조기 발견을 통해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